

## 노조 중앙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 조직화 등 승인

14일, 134차 중앙위 열어 ... 26일부터 사흘간 중앙교섭 합의안 찬반 투표 등 결정



금속노조가 중앙위원회를 열고, ‘2020년 중앙교섭 의견 접근 안’을 승인했다. 노조는 중앙위원회가 승인한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벌이기로 했다. 중앙위원회는 노조 하반기 사업계획안도 승인했다.

금속노조는 10월 14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134차 중앙위원회를 열었다. 중앙위원회는 지난 9월 16일 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회가 의견 접근한 ▲금속 산업 통상시급 8,800원(월 통상임금 1,988,800원) ▲노동3권 보장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 보호 조항 신설 등을 승인했다.

노조는 중앙위원회가 의견 접근 안을 승인함에 따라 오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인다. 투표 결과는 10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위원회는 노조가 제출한 하반기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노조는 하반기 사업으로 ▲구조조정 저지 노조 대응 체계와 공동투쟁 강화 ▲노조파괴법 저지 총파업 조직화 사업 ▲전태일 3법 쟁취 투쟁 ▲임단협 미타결 사업장 지원 투쟁 ▲재난 시기 노동자 안전 요구 투쟁 ▲산업재편 대응과 고용 안

정을 위한 ‘업종별 협의체’ 구성 투쟁 ▲11월 14일 전국노동자대회 실천 투쟁 조직 ▲금속노조 내부 정비와 11기 2년차 사업 준비 등을 제출했다.

중앙위원들은 갑작스러운 코로나 19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비 예산을 조정한 경정 예산안을 승인했다. 중앙위원들은 이밖에 ▲예비비 사용 ▲투쟁기금 사용 ▲신분보장기금 선지급 ▲조합비 정액 납부와 납부 유예 사업장 ▲징계자 복권 ▲조합 단협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 등을 승인하고 중앙위원회를 마쳤다.

# ‘더티’ 지엠, 탈세·대법 판결 무시... 부평 2공장 폐쇄 기획까지

## 한국지엠지부, 외국 자본 범죄 고소·고발 ... “2대 주주 산업은행과 문재인 정부 뭐하나”

지엠이 한국지엠 부평 2공장 에 대해 사실상 폐쇄 순서를 밟으려 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경영정상화를 조건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 세금 8천 100 억 원을 지원받은 뒤, 이익금을 몰래 미국 본사로 빼돌렸다.

한국지엠은 현재 한국 정부 지원금은 모두 사용했지만, 본사가 설비투자금으로 지원한

28억 달러, 3조 2천억 원은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 자본은 지난 9월 21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와 별인 14차 교섭에서 부평공장 미래발전 방안 보충 제시안을 제출했다. 한국지엠은 ‘부평 2공장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신차 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 했다” 라고 밝혔다.

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사측이 제시한 미래발전 방안에 나온 대로 한국지엠이 글로벌 지엠 생산 부문의 중요한 생산 거점이라면, 현재 배정된 Global SUV와 C-CUV 등 두 개 내연기관차에 더해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를 배정해야 한다” 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10월 13일 인천 부평공장 본관 앞에서 ‘국민 혈세 투입 한국지엠 정상화, 문재인 정부 책임과 관리 감독 강화, 일방 구조조정 중단, 한국지엠 미래발전전망 확보를 위한 GM 자본 고소, 고발 기자회견’ 을 열었다.

김성갑 노조 한국지엠 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지엠 자본은 한국 정부와 국민이 혈세를 지원하면 경영을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문재인 정부를 지엠



의 횡포를 방관하고 있다”라며 제대 관리, 감독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카허 카젤 사장이 교섭에서 “한국지엠에 대한 구조조정은 종료됐다” 라고 밝혔음에도 군산공장 폐쇄 이후에도 한시도 쉬지 않고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 국민 세금 8천 100억 원 다 까먹고 ... 공장 폐쇄 운운

한국지엠은 2018년 8월 군산 공장 폐쇄에 이어 지난해 5월 인천물류센터를 폐쇄했다. 한국지엠은 올해 들어 지부에 창원물류센터와 제주부품물류센터 폐쇄 계획을 통보하고, 부평공장 LOO(물류센터) 부지를 일방 매각했다. 한국지엠은 부평 2공장, CKD(반조립 부품)센터에 관한 사업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2공장 폐쇄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지엠 자본이 자행하고 있는 온갖 범죄와 이를 방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산업은행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부는 한국지엠이 이전가격 조작을 통

해 세금을 빼돌렸다고 폭로했다. 이전가격은 다국적기업이 해외 자회사 등과 원재료나 제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다국적기업이 공장이 위치한 정부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가격을 조작한다.

지부는 “지엠 자본이 한국에서 발생 매출과 영업이익을 미국 본사로 빼돌리고 있다. 국

세청 추정액 226억 원과 법인세율 24.2%를 고려하면 빼돌린 금액은 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밝혔다.

지부는 “지엠이 한국에서 서류상 이익이 날 수 없도록 재무를 설계해놓고, 매년 적자 타령을 하며 한국 국민 혈세 투입과 노동조합 양보만 부르짖고 있다” 라고 비판했다. 국세청은 2013년에 이어 지난해에 한 한국지엠이 이전가격을 조작했다며 226억 원을 추징했다.

지엠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관한 한국 대법원판결과 직접고용 명령을 무시하고 있다. 지엠 자본은 2018년 창원공장 직접고용 명령 불이행으로 77억 3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지엠은 대법원판결에 따라 부평공장과 군산공장 불법 파견 노동자 직접 고용 명령을 오는 10월 27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엔진공장과 차체 1공장 화재 등 산업안전보건 위반 18건과 희망퇴직,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부족 인원 발생 관련한 단체협약 35조(적정인원 유지) 위반 등 단협 위반 5건 등에 대해 노동부에 고발하고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 방문노동자, 회사는 ‘노동자 보호 대책’ · 고객은 ‘상호 존중’ 제안

LG케어솔루션지회 존중·배려 운동 전개 ... 고객 일정에 12시간·주말 노동, 시측은 영업실적 강요까지

**회사가 매니저를 존중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케어솔루션 매니저는 LG전자 제품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객 건강 지킴이입니다. 하지만 매니저 대부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환경 속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에 가까운 노동시간과 주말 근무, 차량이 꼭 필요한 업무임에도 이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회사의 영업실적 압박, 매니저 무시와 폭언은 일상입니다. 코로나 시기 비대면 생활을 지탱하는 방문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도 회사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대한 존중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회사가 매니저를 존중할 때, 매니저의 일터가 바뀝니다. 매니저가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때, 고객에게 더욱 좋은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방문노동자에게 존중을' 캠페인에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요.

*고객님의 따뜻한 미소와 말 한마디가 저희를 지킵니다. 원동력입니다. 고객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함께 약속해주세요.*

**LG에 요구합니다!**

- 방문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보호 대책이 필요합니다.
- 방문노동자를 존중하는 업무환경 마련을 위한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요구합니다.
-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고객 여러분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 매니저가 헛걸음하지 않도록 방문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새벽과 늦은 시간의 연락은 긴급한 상황에만 부탁드립니다.
- 반려동물 물림 사고로부터 매니저를 보호해주세요.

LG전자 대여 가전제품 방문점검 노동자(케어솔루션 매니저)들이 ‘방문노동자에게 존중과 배려를’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방문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사회 인식을 높이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가 지난 10월 5일부터 시작한 이 캠페인은 회사에 ‘노동자 보호 대책’을, 고객에 ‘상호 존중’을 제안하고 있다.

케어솔루션 매니저는 가정집과 기업, 공공시설 등을 방문해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LG전자 렌탈 가전제품의 유지·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이다. 수많은 고객을 응대하는 감정노동자이고, 대부분 여성노동자이다.

이 노동자들은 한 달에 200계정(매니저가 담당하는 건수) 이상을 처리한다. 고객의 일정을 맞추려면 하루 10~12시간 일하고 주말 근무까지 해야 한다. LG전자는 ‘고객 만족’만을 외치며 정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인권 등을 보호하는 일에 소홀했다.

케어솔루션 매니저 채용공고의 ‘자유로운 근무 시간’이라는 글자는 허울뿐이다. 자차를 이용해 일하지만 유류비, 소모품비 등의 지원은 전혀 없다. 매니저의 주 업무는 유지점검 업무이지만, 시측은 영업(렌탈판매) 실적이 없는 매니저는 ‘무실적자’라고 압박하며 인사 평가에 반영한다.

방문 노동 특성상 코로나 19 감

염의 불안 속에서 일할 수밖에 없지만 회사는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 운동을 기획한 금속노조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는 “회사가 나서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이런 캠페인을 하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라면서 “회사가 많은 매니저가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니저 보호 대책과 근무환경 개선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LG케어솔루션지회는 이 운동을 전체 방문서비스노동자의 공동 실천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회는 지난 5월 27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자 기본 권리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